

전북 니트·한지섬유 날개를 달다

26일 니트&한지섬유 패션디자인 경진대회 개최
패션의 대중화 통해 도내 섬유산업의 인식 제고

전북도가 26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니트·한지섬유 패션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전북도가 주최하고 ECO융합섬유연구원이 주관하는 '니트·한지섬유 패션디자인 경진대회'는 올해 8회째를 맞이하며, 전북의 특화 섬유소재인 니트·한지섬유의 우수성 홍보와 함께 상품성을 가진 제품 개발을 촉진해 지역 섬유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리다.
올해에는 패션 디자인에 관련된 국내외 대

학(대학원생), 신진 디자이너, 창업·취업 예정인 디자이너 등이 참가했으며, 신축성이 가미된 한지사 섬유인 작품, 데님 등 기능성 원단을 사용하여 47개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본 대회 심사는 실용성, 디자인 감각, 독창성을 심사하는 실물의상 심사와 작품의도를 심사하는 인터뷰 심사를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16개의 작품은 대상 1명(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5백만원), 금상 1명(전라북도지사상, 3백만원), 은상 1명(익산시장상,

2백만원), 동상 2명(섬유산업연합회장상·ECO융합섬유연구회장상, 각 1백만원) 등이며 총상금은 16.5백만원이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는 국화축제와 연계하여 치뤄지는 행사인 만큼 관객에게 11만 송이의 국화를 보는 즐거움까지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해성 도 혁신성장정책과장은 "도내 우수한 품질의 니트·한지 패션을 대중화하여 도 섬유산업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전라북도 섬유 공동브랜드 설립 지원 사업과 같이 도내 섬유산업의 인지도 제고와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도 다양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추담 전국 국악경연대회 성료

(사)추담판소리보존회가 주관하는 제13회 추담 전국 국악경연대회가 지난 19~20일 2일간 부안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관소리, 무용, 기악 등 3개 부문을 일반부와 신인부, 학생부로 나눠 진행했으며 참가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펼쳤다.
대회결과 일반부 대상(국회의장상)은 문명현(전북대 2학년)씨가, 일반부 종합대상은 이민지(추계예술대)씨, 학생부 종합대상(교육부장관상)은 오대주(전남예고 3학년) 학생이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대회기간 민요와 가야금 병창 등의 특별공연과 푸짐한 경품을 준비해 참가자 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에게도 즐거움을 선사했다. /부안=김진성 기자



제13회 추담 전국 국악경연대회가 지난 19~20일 2일간 부안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순창군, 가을주간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듬뿍'

순창군이 가을 주간 문화공연을 풍성하게 마련했다. 31일 저녁 7시 순창향토회관에서 관악 공연 '서울윈드오케스트라의 일반인을 위한 Wind story'와 11월 5일 오후 3시와 7시 30분 연극 '만선'을 군민들에게 선보인다.
공연은 남녀노소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연극 '만선' 공연은 오후 3시에는 중·고등학생, 오후 7시 30분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당일 선착순으로 입장할 계획이다.
10월의 마지막 날에 선보이는 서울윈드오케스트라의 일반인을 위한 Wind story 공연은 순창군이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가 주관하는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인 오는 31일 열리게 됐다.
서울윈드오케스트라의 일반인을 위한 Wind story는 1974년 창단한 국내 제일의 관악 오케스트라 공연단으로, 성필모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해설을 통해 일반인들이 관악기(Wind 악

기)에 대해 쉽고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공연을 기획했다.
가을 주간 두 번째 연극 '만선'은 순창군으로 귀촌한 예술인 지미리씨가 출연하는 연극으로 극의 내용은 힘든 현실 속에서 동반자살을 선택한 가족들이 통통배 한척을 훔쳐 망망대해로 나가 바다위에서 펼쳐지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담긴 휴먼 가족극이다.
연극 '만선'은 현재 대학로에서 대중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인기리에 상연되고 있는 공연으로, 순창군과 귀촌인 지미리씨의 노력으로 11월 5일 순창에서 상연이 가능하게 됐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가을주간으로 10월의 마지막 날 국내 최고의 관악 오케스트라 공연단이 펼치는 윈드 공연과 귀촌 예술인 지미리씨의 연극 '만선'까지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연을 준비했다"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한편 순창군은 11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삼국지중 적벽대전을 다룬 판소리극 '화용도'를 계획 중에 있으며 12월에는 상주단체 공연 '황하리 아씨전'과 울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의 밤'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내 맘속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큰 길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서 28일까지 '조동권 개인전' 개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 서울관에서는 오늘부터 28일까지 '조동권 개인전'이 열린다.
조동권은 원광대학교 서예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이번 전시는 작가의 3번째 개인전이다. 그는 현재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캘리그래피 강사, 전북교육문화회관 서예강사, 꽃밭정이복지관 서예문화강사, 하안떡빛캘리그래피 대표, 전라북도미술협회 서예분과 이사, 한국캘리그래피 아카데미협회 전북지부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작가의 가슴 속에만 품고 있던 자유를 캔버스라는 또 다른 현실에 옮겨 놓은 것이다.
이는 유행하고 있는 흐름에 비추어 현대인의 감성에 충실해야만 감동을 조금이나마 더 줄 수 있다는 그의 신념 때문이었다. 부질없는 욕망, 시기와 질투, 분노와 증오, 아집과 독선 등 이런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바람결에 실려 보내고 기쁨, 즐거움, 화해, 사랑, 그리움, 다짐 등의 긍정을 작품에 투영하며, 기본적으로 기독교 성에 따른 조형원리를 염두에 두었다.



회화적인 색채 조형은 읽는 서예보다는 보고 느끼는 서예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그만의 선명한 채도를 활용한 회화기법은 부드럽으면서도 화려하고, 강렬하면서도 경쾌하다. 중간 중간 옛것과 현대적인 것으로 반전을 주고 일기를 쓰듯 자유롭게 표현했다. 재료의 무지에서 오는 시행착오마저 그에게는 자신의 삶이 되어가는 재미를 느끼게 했다. 이 과정에서 색채와 형태에 대한 자유로운 탐색을 하고 외부의 의식하지 않은 채 철저히 본인에게만 집중했다.
현혹하듯 화려한 색감과 형태의 운동은 어디까지가 서예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이미지를 남겨 놓기도 했다.
순전히 이 모호함은 값진 시행착오의

경험에 기인한 것이다. 서예의 숨겨진 미와 그 속의 환상을 이렇게 풀어봄으로써 작품의 정체성을 되짚어 보는 시간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작가는 현재 '筆(필) - 사춘기'를 읽고 있다. 정신적으로 자아인식을 높이고 본인 작품 - 양면이 성숙기에 접어들기를 원하고 있다. 새로운 글자예술을 계속 창출한다는 것은 엄청난 정신의 긴장과 깊은 사색, 끊임없는 노력 없이는 얻지 못할 함을 깨달았다. 그는 앞으로 부지런히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개성과 특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첩경에 이르러 오늘의 내 맘대로 탄생한 분신들이 앞으로 (내맘大路(대로) - 내 맘속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큰 길)이 되기를 원한다. /김진성 기자

진안군, 내일 '10월에 만나는 가을애 클래식' 무료 공연

진안군은 10월 문화기획 공연으로 '10월에 만나는 가을애 클래식'을 내일, 오후 7시 진안 문화의집 마이홀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목표로 2011년 창단된 보리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지휘자 양일오, 바리톤 고성현, 소프라노 김혜정의 협연 무대로 함께 한다.
모차르트 곡 'Eine kleine Nachtmusik', 브람스 곡 '헝가리 무곡 5번', 이영조 곡 '엄마야 누나야, My way, 하얀겨울 OST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이 공연된다.

널리 알려진 클래식과 오페라, 가곡, 드라마 명곡들을 실력과 성악가들과 함께 꾸며지게 될 이번 공연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깊어가는 가을밤 오케스트라 공연을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지속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건강한 숲! 행복한 삶! 부안군산림조합이 함께 하겠습니다.

나무시장운영

정기적금

일반대출
(토지매매외)

임야경영
컨설팅지도

벌초대행

정기예금

공과금자동이체

기계톱
면세유공급

퇴비·고추 비료 판매

정책자금 대출

인터넷·모바일 뱅킹

조합원가입

임산물 재배지도

sj 산림조합상조

SJ 부안군산림조합

☎ 063-584-3089